내 주장자 못 세우면 업보에 끄달려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 놓지 안달박달 안해.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는 거지. 변호사를 진짜로 믿는다면 돈하고 서류하고 턱 갖다 주고 그냥 그 변호사만 믿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때에, 때로는 뭐가 부족해서 변호사가 이기질 못했다거나, 또 자기가 너무 엄청 많이 저질러놨기 때문에 이기질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하, 그것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저질러 놨으니까 그것이 금방 어떻게 잘되랴. 그거는 졌을망정 잘 돌아가서 나중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내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는 게 아니지. 안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 싹이 뿌리를 안 믿으면 뭘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뭘 믿느냐고. 형상을 믿을 거야? 이름을 믿을 거야? 허공을 믿을 거야? 정말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형상을 믿을 거야? 어떡할 거야? 자기부터 알아야, 수억 겁을 거쳐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선지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벌레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중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 뱃속에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야.

굴려서 놓아야 하는 이유

문 스님께서 관하는 공부 방법을 일러주시면서 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놓으면 그뿐이지 왜 굴려서 놓아야 하는지요? 굴려놓는다는 자체가 군더더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군더더기는 무슨 군더더기? 이 세상 우주천지가 구르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냥 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구르고 있어. 그렇게 그냥 구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구르고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굴려라, 굴려라 하는 거야, 알 때까지. 처음 들어온 머슴한테는 너 아무 데 가서 이거를 사 가지고 오너라 한다든가, 이런 말을 여쭙고 오너라 한다든가, 이걸 갖다 드리고 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고 오라고 한다든가 해서, 처음 머슴이 왔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주지, 그렇지?

머슴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심부름을 시켜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머슴이 오래 있다 보면 주인이 '얘, 아무개야 어디 갔다 오너라.' 이렇게만 말을 해도 벌써 왜 갔다 오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말로 일일이 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갔다 오라고 하는 구나.' 하고 벌써 알고 자기가 그냥 가서 잘 해결을 하고 와.

그렇듯이 주인공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자(子)가 과거에 살던 과거 부(父)를 믿고 하는 거야. 수없이 내려오면서 살던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자는 부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부는 자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결하게 하고, 그냥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주인공에다가 굴리지 않아도 되는 도리가 있지.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 목이 마르니까 컵에 물 좀 줘.' 라고 해야 물이 들어오는 거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빈 말만 나오게 되지 않겠어? 그런데 아주 실천을 하는 말을 거기다 넣었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이 나와.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굴려서 놔라 이 소리야. 진짜 자동적인 컴퓨터야. 그러니까 입력할 때 그렇게 넣어야 입력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철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사량으로 '너 알아서 해라.' 한다면 알아서 해라 한 걸로만 컴퓨터에서 나와. 이건 아주 정확한 거니까, 하나하나 들이고 내는 걸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고 자세히 알아가기 바래.

끔찍한 사건 왜 일어나는지

문 지금의 내 모습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 생긴다 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그들의 업에 따라 지금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잔인성은 더욱 더해갑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끔찍한 사건은 없었을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우리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저렇게 야단들이잖아? 사람이 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들을 부리고, 또 그렇게 있다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뭐가 그렇다고, 몇 천년, 몇 만년 사는 줄 알고 모두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또 사건도 그래. 모든 게 자기가 저질러놓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체가 없는 도리를 알면 일체가 참선

잘났든 못났든 내 행복 내가 찾는 법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라고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죽으면 또 다시 재생이 돼서 나오고, 나오면 또 죽고 이렇게 정반대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이러지 않나. 이것이 진리 아닌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진리야, 그냥. 그러니까 어서 어서를 공부해서 그런 지나친 마음들이 없이 살게끔 우리가 한마음에 법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되겠지.

태초에 무명 업식 생긴 까닭

문 제가 스스로 깨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알아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너무 긍금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생은 본래 성불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래 성불한 그 자리에서 어찌해서 무명에 가린 나라는 업식이 나왔으며, 또 그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답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자기한테로 자기가 가는 거니까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한 자기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자체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백짓장 사이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통 속에서, 그걸 합쳐서 육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했죠. 통이라고 말한 것은 바깥으로 나와야 내 모든 것을,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 속에서만 복작거리지, 이거를 굴릴 수가 있나요? 바깥으로 나와야 그 통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니까, 또 나중도 없고 먼저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럴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뿌리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뿌리에다가 맡겨놓고, 마음으로 너만이 나를 일거수 일투족 이끌어 줄 수 있고, 빛이 나게 하는 것도 너고, 물리가 티지게 하는 것도 너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너고, 굶고 살지 않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굶지 않고 살게 하는 것도 너라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 해야 되지, 자꾸 이유를 따지면 진짜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자꾸 넣으세요. 아리송하면 그냥 아리송한 대로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모든 것을 근본에 일임해서 맡겨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아니라는 느낌이…

문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가 곧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몸을 떠나서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무한한 그 무엇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와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시 분별에 가려져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은 마음으로 그 까닭을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까지도 부처님의 사랑, 주인공의 나툼임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 속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릅니다.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정되게 한 우물 안에, 한 항아리 안에 갇혀 있다가 그 항아리 안을 벗어나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지금 자기 모습은 몰라도 자기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는 바로 나를 알고 있고, 모든 걸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난 거죠. 만나기 직전이니까 너무나 간절해지니 울게 되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자식과 부모가 상봉하는 거와 같은 건데.

과거에 살던 나, 부(父)가 현재에 사는 나 자(子)를, 부와 자가 서로 상봉하게 되니 그 눈물이 흘러도 흘러도 다 못다 흐르리만큼 감사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도 놓치지 말고 항상, 자기가 한평생 사는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마는, 내가 뭐를 한다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이끌고 가는 부에게 맡긴다면 마음이 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끔 되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살게 되고요.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 뿌리 믿으라는 걸 잊어서는 안돼요. 그거는 진짜 자기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 자식한테까지 영향이 가죠? 보이지 않는 데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또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해 놓지 않으면 내 행복을 내가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처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그 자체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전체 한데 합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에다 모든 거를 일임하고, 앞으로는 위 부모들이나 아래 자식이나 모든 걸 거기다가 놓고 살게끔 이끌어 주세요. 전자의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든 유전성이든 인과성이든 다 무너지게 만드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게 무너진다면 앞으로 자기가 2세를 낳고 살아도 그 애들한테는 근접도 안 해요. 그걸 알고 열심히 살아요.

감응과 체험이 안돼요

문 이 마음공부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최상승의 공부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몇 해 동안 해오면서 제 안에 저의 근본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감응이 되고 체험이 되지를 않아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이생이 다하기 전에 저의 근본을 정말 상봉하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주인공이 뿌리라면 지금 이 몸뚱이가 싹과 같은 건데, 그래서 싹과 뿌리는 항상 붙어 있는데 무슨 실망이 된다고 합니까?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싹과 뿌리처럼 붙어있다는 걸 아무리 일러줘도 모르니깐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불성과 자기 몸뚱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를 붙어 있는 줄 모르니까 같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허망하다 생각지 마세요, 어렵게도 생각지 마시고요.

그저 한 찰나에, 허망하고 허망치 않고 그런 거를 그냥 둘 아니게 다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물론 놓고 들어갈 수 있다면, 늦고 빠름을 떠나서 지금의 이 과정이 나를 발견해서 이끌어 가는데 더 없이 소중한 시간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큰 것을 바라지말고 작은 거부터 체험하면서 매사 감사함을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올립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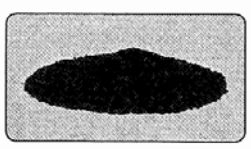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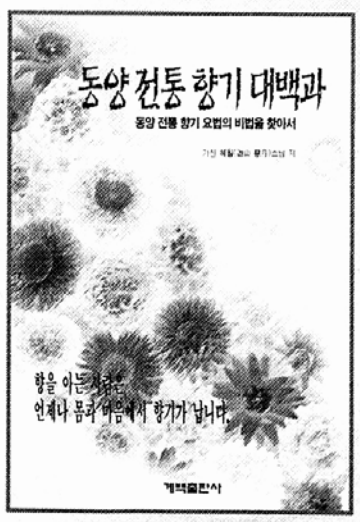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 www.hyangbang.com

나도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다.

스님이 가르쳐 주는 동양 전통의 향기 요법!
향으로 배우는 건강 요법부터 목욕 요법까지 - 그 재료와 사용법



정가 : 12,000원

기신 혜월(迦山 慧月) 스님 지음

- 향의 비밀
- 우리나라 향기 요법의 발전 과정
- 향과 종교
- 전통 향 요법의 제작 과정
- 먹는 향
- 분향하는 향
- 화장품 향 만드는 법
- 향욕법
- 패향법
- 침향법
- 훈향법
- 향, 호흡, 참선, 기공
- 향의 신비

계백출판사